

## 궤도진입성공 미, 페가더스 XL 위성

미국 OSC사의 페가더스 XL 유익위성은 고도 11,900m의 태평양상을 비행하는 록히드 마틴 L-1011을 개조한 모기로부터 분리 발사 되어 720×700km의 극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페가더스 XL에는 미국 공군의 REX-2 과학측정장치가 탑재 되어 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지난 94년과 95년에 두번이나 실패한 뒤 세번째 성공한 것이다. OSC사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금년내에 도합 7회의 페가더스와 페가더스XL형을 더 발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지구 선회궤도에 올려지는 것은 미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4개와 미국탄도미사일 방위국(BMDO) 및 아르헨티나의 위성 2개라고 전해지고 있다.

## 전우주비행사추락사 미국서, 비행시험중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였던 로버트·F·오버마이어씨가 VK-30 깃드브렌이라는 신종 항공기를 시험비행중 미네소타주 다루스공항 부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미국의 항공우주관련 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고도 2,590m에서 실속 시험중 참변을 당했다. VK-30기는 전

체를 복합소재로 만든 프로펠러기로 아리슨 250-B17 터보프롭 엔진 1기를 탑재한 소형기이다.

오버마이어씨는 해병대 출신 조종사로 1966년 미공군의 시험비행사 양성학교를 마친뒤 NASA의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1982년 스페이스 셔틀 STS의 조종사로 우주를 왕복 했으며 1985년에는 체린저 우주선의 함장을 지낸 바 있다.

## 조사단 파견 일과기침, SST관련으로

일본 과학기술청은 최근 차세대 초음속 실험기와 스페이스 프레임 실험기의 개발과 실험에 대하여 의견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유럽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일본 동북대학의 항공우주공학 전공의 나카무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7인의 조사단은 독일과 프랑스 양국을 방문하여 독일의 DASA사를 비롯해 프랑스의 아에르 스파시알, 그리고 유럽우주기구(ESA) 등을 방문하고 돌아 왔다.

동 조사단은 차세대 초음속수송기와 우주왕복 스페이스 프레임의 국제공동개발을 위해 유럽 업계의 사정과 현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초음속기에 대해서는 실험계획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유럽 업계에 설명하여 각국의 연구방향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GPS 위성 발사 미공군, 플로리다 기지서

미국공군은 플로리다주 소재의 케이프 케너베럴 공군기지에서 GPS(전지구위치측정시스템) 위성의 대체용 1호를 MD사제의 델타II 로켓으로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공군 소식통이 전했다.

GPS 위성은 1994년 4월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되어 현재 24기의 위성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한 위성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GPS위성은 군민 양쪽의 고객에게 무선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이다. 그 용도는 고정도의 지도작성이나 측량을 비롯해 트럭이나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송 수단들에게 현재의 위치를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개발된 위성이다.

## ALFLEX 시험시작 일 우주사업단, 호주에서

일본우주사업단(NASDA)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왕복선인 스페이스 프레임 HOPE-X 시리즈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동 우주왕복선에 장치할 자동착륙 실험기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우주사업단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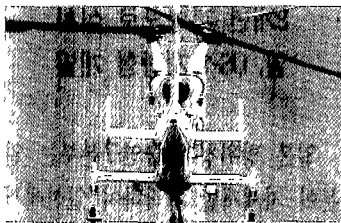
일본 국내와 일본열도 근해에서 행한 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호주의 무렐러 비행장에서 ALFLEX 소형

자동착륙 실험기의 실험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호주 현지에서는 실험기의 여러 자어치에 대한 작동을 실험한 데 이어 지상 설비의 조립과 조화에 대한 실험을 끝냈고 주행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에 걸쳐서는 헬리콥터에 매달고 공중에 올라가 일정한 높이에서 발진시키는 실험을 하고 8월 중순까지는 본격적인 소형 자동 실험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 실험은 HOPE-X의 3분의1 축소모형을 이용하며 이 모형은 KU-107 헬리콥터에 매달고 고도 1500m까지 올려 놓고 가속 분리시켜 정해진 비행장에 자동으로 착륙하는 장치를 실험하는 것으로 기상 조건 때문에 호주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헬리콥터에 매달린 HOPE 축소모형에 의한 착륙시험기

### 전파망원경 최종조정 일, 문부성 우주기술연구소서

일본 문부성 우주과학연구소(ISAS)는 그동안 제작중인 지름 8m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갖춘 첫 우주 전파 망원경A(MUSES-B)가 거의 완성되어 최종 조정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MUSES-B는 무게가 830kg으로 접개식 안테나는 우주 공간에서 퍼진다. 이 우주전파 망원경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전파망원경과는 달리 우주공간에 발사되어 지상의 전파망원경과 연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주 전파망원경은 오는 9월에 가고지마에 있는 우주관측소에서 M-5 로켓으로 우주 공간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 망원경의 특색은 공중에서 포착한 천체로부터의 전파를 모아 지상에 있는 고정 전파망원경으로 보내 정도가 높은 우주 관측을 하자는 것이다. 두개의 망원경 거리는 약 3만km나 되며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름이 3만km나 되는 초거대 전파망원경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당면한 관측 표적은 태양의 흑점과 은하, 그리고 준성 같은 것의 중심부에서 초고속으로 가스가 분출하는 등의 활발한 천체 활동의 정체를 알아 내려는 것으로 세계적 관측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

### 관측용 SFU 귀환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회수

미국의 우주왕복선인 스페이스셔틀 엔디버호에 미국인과 동승했던 일본인 우주비행사 와카다씨에 의해 회수된 우주 실험관측기인 SFU가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우주비행후에 회수된 일본의 최초

인공위성이다.

일본 문부성 우주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회수되어 돌아온 SFU 위성은 미쓰비시전기 가마쿠라제작소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우주에는 일찍부터 인공위성의 파편이나 우주 쓰레기, 그리고 흑성간 유리 먼지등이 무수히 날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발사한 위성이 기능이 정지되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게 된것을 의도적으로 회수해 보기는 일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 다크스타 첫비행 에드워드 기지에서

록히드 마틴과 보잉 티어Ⅲ가 공동 제작한 고고도 체공 무인 정찰기인 UVA 다크스타호가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공군기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미국 공군 당국이 발표했다.

초도비행은 약 20분간에 걸쳤는데 이시간 동안 다크 스타호는 계획된 비행을 완전히 자립적으로 수행했다. 비행중의 유도는 전지구위 치측표정 장치가 있는 인공위성의 항법신호를 수신하여 방향을 유도하는대로 날았으며 약 1500m 상공에서 계획된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다크 스타호의 첫비행은 작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제가 있어 연기되었었다. 다크 스타호는 고도 13,700m 상공에서 무인으로 비행하며 지상을 정찰하게 된다.